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5월 27일 (넷째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11-16절

설교제목 : “놀라운 능력을”

오늘 본문 11-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 이외에 다른 시간에는 이전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손수건’으로 번역된 ‘수다리온’은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땀을 닦던 수건이었습니다. 또한 ‘앞치마’로 번역된 ‘시미킨디온’은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작업용 앞가리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바울이 사용하던 땀 닦던 수건과 앞가리개를 가지고 와서, 병자와 귀신들린 자에게 얹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고, 에베소에 만연해 있던 마술사들이 했던 마술의 대부분이 자신이 가진 소지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교적 문화에 익숙해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병자의 치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능력의 근원이 바울에게서나, 혹은 바울이 사용했던 물건 때문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악귀를 쫓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단어가 총 120여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세상에 이미 도래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현재적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적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선교적 일꾼들은 헌신된 목회자들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해외로 나가는 목회자들의 선교적 후원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자칭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교회는 성도들을 가능하면 세상과 분리시키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삶의 기초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가 전도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일꾼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코치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들의 생업과 삶의 자리에서 사탄과 맞서 싸우고, 그 곳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쏘는 ‘여호와 넋시’적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단순히 선교사로 헌신된 목회자를 해외 선교지로 보내는 자가 아니라, 성도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성도들은 사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선교지 삼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이,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교회는 성도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야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개념으로 세상으로부터 성도들 보호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본문에서 ‘놀라운’으로 번역된 ‘**τεικανο**’는 ‘**예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와 귀신들린 사람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병마가 떠나는 기적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행하게 하시니**’로 번역된 ‘**εποιει**’는 계속됨을 나타내는 미완료시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석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란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능력만은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의 실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실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막 12:28-31)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요, 율법의 근본정신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매순간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사탄의 나라를 쳐부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1)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바울이 사용하던 땀 뻘뻘 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자와 귀신들린 자에게 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누가 진정한 선교적 일꾼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2)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이번 새생명축제와 부흥회를 놓고 다같이 연합해서 기도하십시오.

4)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